

기도

1.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주어진 은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2.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나눠주세요.

신앙

고린도 지역의 거울

본문 12절의 '거울'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 거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거울은 현대의 거울에 비하면 상이 희미할 수 밖에 없었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구리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울은 당대 생산되던 거울 중 그나마 가장 '덜 희미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점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설교에 이용했다. 최고의 거울인 고린도 지역의 거울조차도 결국 불완전한 상을 비출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서는 이 세상 위의 어떤 것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들 가운데 연약하고 희미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해야 한다.



주의 사랑을 깨닫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주의 사랑을 깨닫자

고린도전서 13장 9-13절 (찬27장, 315장)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은사와 실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만해졌고 결국 서로 분열하여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의 은사는 부분이고 이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9-12절).

바울은 자신의 은사들을 앞세워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9절). 그들의 은사와 능력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치우쳐서 잘못 사용하거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10절). ‘온전한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는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폐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세워지고,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통해 올 바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장성한 자의 비유로 말씀합니다(11절).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해지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온전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12절). 당시 거울은 재질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희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희미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하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마15:28). 가나안 여인 또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13절).

본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믿기만 하면 영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소망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13절).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8:37-39).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받은 은사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연약함이 폐하여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장성한 자가 되어 온전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가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